

[기획특집 · 간담회]

## 광복 이후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전망

---

- 일시 : 2004년 3월 5일 오전 10시-12시
- 사회 : 남기심(南基心, 국립국어연구원장)
- 장소 : 국립국어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김민수(金敏洙, 고려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강신항(姜信沆, 성균관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김석득(金錫得, 연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이기문(李基文,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 박갑수(朴甲洙, 서울대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 이익섭(李翊燮,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

**남기심** : 오늘은 그동안 표준어 사정에 참여 하셨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을 모시고 표준어 심의에 관한 회고와 전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표준어 심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표준어 정책이 결과적으로 지역어를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지역 방언도 문화유산의 하나인데 강력한 표준어 정책으로 자꾸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하기도 합니다. 표준어는 일일이 기억해서 쓰기가 힘들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계기로 표준어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표준어 사정과 관련된 문제는 꽤나 많습니다. 먼저 표준어의 사정 원칙인 ‘현대’, ‘서울말’, ‘교양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견(異見)들이 있습니다. 현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 사람의 일생을 백 년으로 보았을 때 그 폭이 꽤 크기 때문에 어느 시점, 어느 세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교양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어느 계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서울 안에서든 곳에 따라 조금씩 말씨가 다른데, 어느 곳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표준어 사정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변종(變種)과 이종(異種)들 중의 어느 하나를 수용할 때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으스대다’와 ‘으시대다’ 중에서 ‘으스대다’를, ‘어수룩하다’와 ‘어리숙하다’ 중에서 ‘어수룩하다’를 표준어로 정했는데, 그 기준이 ‘품위가 있다, 없다’, ‘방언냄새가 난다’, ‘어색하다’ 같은 것이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조어와 외래어에 대한 표준어 사정 원칙이 정해진 바가 없었는데, 그 기준은 어찌해야 할 것인지, 표준어 사정을 상시 가동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김석득** : 남기심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표준어를 다룰 때 이

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준들에 손을 대면 견잡을 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준어를 사정할 당시에도 폭을 넓혀 보려고 꽤나 애를 썼습니다. 표준어 심의위에서 탁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어를 표준어로 편입시킨다든가, 그 지방의 말과 서울말을 함께 복수표준어로 만든다든가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복수표준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서 서울말에는 쓰임이 없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복수표준어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는 복수표준어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방언을 문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고 유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의 표준어 정책에 대해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자꾸 건드리면 교육 부문에서 견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대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강신항** : 요즘 표준어를 없애자고 일부에서 말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지구상의 나라들 가운데 공식 언어로서의 표준어를 안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사투리를 사용하면 부끄러워하곤 했습니다. 요즘은 그때와 비교해 보면 사투리 사용하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반인들도 사투리 사용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표준어로 인해 사투리가 없어진다고 표준어 정책을 바꾸자



고 합니다. 지금 이 표준어 문제를 끄집어내어 국어의 정체성 문제에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보다 다른 일들에 연구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은 표준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공식적인 언어는 북경어인 보통화인데 성마다 그 지역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보통화 안 쓰고 그 지방 말로 대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식 언어인 보통화를 없애자고 안 하거든요.

**남기심** : 현행의 표준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표준어를 없애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표준어 정책이 너무 강력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의 표준어 정책이 강력한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쓰지 않게 하는 면도 있고, 사투리 사용에 융통성이 없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말씀하셔도 좋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표준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는 반성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갑수** : 일본에서는 표준어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정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표준어 규정에서도 ‘서울말’ 자체가 아니라 ‘서울말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준어를 정하는 데에 경직되게 보인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표준어를 정할 때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빈도나 언어 현실을 고려해서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는 쪽이 바람직한데, 복수표준어의 확대는 공식적으로는 표준어를 유지하되, 비공식적으로는 사용하는 지역어의 폭을 넓혀 주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구를 상설화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문** : 남기심 원장님께서 표준어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기준을 지금 어떤 측면에서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50년 이상 사용한 것들이라서 표준어 어형들 가운데는 이미 굳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또, 현실 발음과 표준 발음 사이에는 변화로 인한 일정한 간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 부문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고치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표준어를 고쳤던 예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손도손’을 버리고 ‘오순도순’만을 취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허용했어야죠. 프랑스 역시 표준어를 사정하는데 사전을 만들면서 정해 나갑니다. 우리도 적당한 기구를 만들어서 자꾸만 사정해 나가야죠. 다만 기존의 표준어 없애지 않고 추가해서 복수표준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복수표준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시렁’을 ‘실경’이라고 하는 사투리가 있는데 이 둘을 다 복수표준어로 인정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복수표준어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익섭** : 우리나라처럼 방언에 힘이 실려 사용되는 나라도 없다고 봅니다. 우스운 예 하나입니다. 경상도 어느 학교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선생님이 부임했는데, 그 곳 학생들이 선생님의 표준어 사용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을 어느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평가단’을 만들어서 표준어에 대한 평가를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운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어라고 할 때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자리가 아닌 사적인 자리, 가족이나 친구끼리 말할 때는 자기 고장 말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1988년에 표준어를 개정할 때 복수표준어를 대단히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예를 든 ‘오손도손’은 그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만 ‘명계’와 ‘버들피리’도 그때 허용된 것들입니다. 표준어의 기준을 정해서 이 울타리만 표준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수표준어를 통해 표준어에 방언이 편입될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명계’는 확실히 ‘우렁챙이’보다 많이 사용하므로 표준어로 편입된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시렁’에 ‘실경’을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데에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갑수** : 활용 어미 ‘-냐’는 정규 문법에서 표준형으로 인정하지 않은 말인데, ‘-냐’, ‘-거라’가 일반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인데, 일단 정책에서 정해진 것이라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면서 어느 정도는 정착되고 먹혀들어가는 단계로 보입니다.

**김석득** : 표준어 문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 세력에 대한 새로이 사용하게 된 어휘 세력의 도전으로 이해됩니다. 신흥 세력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분포 조사와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조사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고, 그 후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어휘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친 후 특정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기문** : 결정의 권한을 가진 기구가 위원회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하기보다는 좀더 범위를 넓힌 기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결정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구에는 세대차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내 생각에는 30대와 같이 언어 형성이 안 된 세대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40대에서 60대를 포함하는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방언을 많이 발굴해서 사전의 표제어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우리말 큰사전’ 만들 때 방언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인승 선생님 공이거든요. 참 잘한 일입니다.

**남기심** : 1990년에 국어연구소에서 조사와 검토를 하고, 국어심의회의 한글분과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심의 확정된 어휘가 약 1,400개 정도 있는데, ‘새 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고유어 단어들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것들입니다. 이는 상당히 계몽적인 방법이고,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형태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수의 결정을 다수 국민들에게 따르기를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표준어를 정해서 공고한다 해도, 일반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이런 표준어를 정하는 역할을 넘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익섭** : 일반 국민들이 규범을 안 따라 주는 것을 너무 의식해서는 문제의 본말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규범의 특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현상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사용해야 할 언어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있는 마당에 일부 국민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표준어를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표준어 정하는 문제를 언론이 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다른데,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범의 적용 문제는 이제 정착이 되어가니까 조금 유연하게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회언어학에서도 세대별 언어 차이는 과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언어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언어에 해로운 결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마라’는 표준어이고, ‘-말아라’는 비표준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어 썸다’나 ‘-아어 대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다 올렸어요. ‘뒷간’만 표준어였던 것을 ‘변소’도 함께 표준어로 올렸다면 이들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색하다’, ‘방언 냄새난다’, ‘품위 있다, 없다’ 등과 관련해서는 사전에서 ‘비표준어’나 ‘품위 없음’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조정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신항** : 표준어를 정하는 데에 참여할 사람들에 대한 일정한 세대별 기준과 표준어의 사정 범위에 대한 기준은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어서는 곤란하겠죠. 문제는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인데, 50년 이상 표준어를 사정해왔습니다. 세대별 기준을 엄격히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양 있는’이라는 조건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새삼스럽게 바꾸는 것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기준으로 표준어를 적용한다고 할 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표준어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심** : 표준 발음도 문제인데, 어형과 발음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꽃이’를, 많은 사람들이 ‘꼬시’라고 발음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형을 그대로 두되 발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또, 사이시옷의 경우, 표준 어형은 ‘만둣국’이지만 대개는 ‘만두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전에 등재함으로써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규칙으로는 해결 안 되고,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규범에는 너무 많습니다. 국어의 전문가들도 맞춤법이나 표준어 시험을 보게 하면 100점 맞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심지

어 교육부와 교과서도 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언론에서 앞장서서 보급하는 것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석득** : ‘꽃이’라고 써놓고, ‘꼬시’라고 발음해도 좋다고 하면 그런 종류의 말은 다 문제가 됩니다. 발음을 허용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맞춤법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연구원과 언론 기관이 협조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합해서 논의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문** :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 아직은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단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맞춤법 개정하면서 잘못 고친 것들이 있는데, 특히 2음절 이하에서 장음을 전부 없앴거든요. 2음절 이하에서도 인정할 것들이 있는데 싹 없었어요. 이런 점은 잘못된 겁니다.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국어 교육과 깊이 관련된다고 보는데, 국어 시간에 표준어에 대한 교육이 좀더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민수** : 내가 전부터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현재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는 들어 놓은 예가 많이 부족한데 이 점은 사전의 표제어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단위로 보완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 언론에도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발음과 관련해서도



국민들 상당수가 ‘꽃이’를 ‘꼬시’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표준 발음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도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표준어의 한자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중국에서만 쓰거나 일본에서만 쓰는 한자어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모두들 ‘시체(屍體)’를 ‘사체(死體)’라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의 상용한자에 ‘시(屍)’의 한자가 없어서 ‘사체’라고 쓰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쓰고 있는 현상인데, 몇 번 제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얼짱’이라는 국적 없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이는 일본어의 ‘짱’을 흉내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비어(卑語)로 다루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보냄으로써 앞 다투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봅니다.

**박갑수** :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하면서 한자어와 외래어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래어와 순화어의 문제, 나아가서 구나 문장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가운데서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제까지 깊이 논의해서 심의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기심** : 서양 외래어의 사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모두 순화해 쓰도록 하고 있는데, 외래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실은 규범과 관련해서 아무런 강제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률 문장 같은 경우 잘못 쓰인 것을 연구원에서 열심히 다듬어 주어도 법무부의 법률 개정 때 반영되는 것은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강신항** : 외래어 사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코노미’나 ‘위크 엔드’와 같은 외래어를 로마자 ‘Economy’와 ‘Weekend’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로마자가 ‘국가적인 문자’로 쓰이게 되었는지 한심합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도 엄중하게 지적해야 하는 문제인데 실체는 그렇지 않

은 것 같습니다.

**김민수** : 중국이 우리의 고구려사를 그들의 역사에 편입하는 문제로 요즈음 한참 말이 많은데,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던 만주 지역의 지명 한자를 우리는 전부 중국 발음으로 읽고 표기하면서도 고구려사라고 주장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동포들은 ‘연변’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만 ‘옌뵈’이라고 굳이 중국음으로 표기합니다. 이런 외국 지명 표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옌뵈’ 또는 ‘연변’이라고도 표기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모두 ‘옌뵈’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서 보면 우리 동포들은 ‘대판(大坂)’이라고 하지 ‘오사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언론에서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요즘 ‘모기지론’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말의 뜻을 일반 사람들로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남기심** : 제가 어떤 기회에 ‘유럽’을 ‘구라파’라고 했더니 노인이시네요 하더군요. 현지 발음으로 지명을 표기하게 된 것은 언론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서 송고할 때 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어의 보급에 대해서는 비록 현행 법 체계에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어를 다루기 위해 언론과 국어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규범을 지키도록 여론을 끌여가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은 앞으로 표준어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李浚碩>